

일주문



'장보고와 불교' 학술대회 개최
제주 법화사 주지 서동 스님은 10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보고와 불교' 주제 학술대회를 연다.(064)738-5225



광주 전남 불교 합창제
광주불교사업연합회장 해항 스님은 10월 26일 오후 7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 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062) 376-3223



서각·서예 전시회
장수 도성암 주지 송강 스님은 10월 19-25일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서각·서예 80여점을 선보이는 개인전시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환자들기 한마음합창제
한마음선원 출신지원장 혜안 스님은 10월 30일 오후 3시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소아암환자들기 한마음합창제를 개최한다.(052) 295-1884



남경중의약대 한국총장 재임명
산화불교대학장 혜인 스님은 9월 26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국총장에 재임명됐다.

서울불청 신임회장에 김대원씨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해 바림직한 불자청년의 모습을 확립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불청) 제19대 회장에 김대원씨(42·사진)가 당선됐다. 김 회장은 10월 19일 서울 대각사에서 진행된 서울불청 회장 이·취임식에서 "70-80년대에 비해 불자청년들의 활동이 많이 침체되면서 서울불청의 규모도 작아졌다"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불청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마라톤 대회나 댄스경연 대회 등 신세대들이 좋아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불자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상담교과를 편성, 불자 청소년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이필이씨 제16회 경남예술인상 수상

이필이(70·전 경남무용협회장·사진) 보살이 경남예술에 의해 제16회 경남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남예술은 "한국무용협회 마산지부를 장림해 '경남무용'의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는 등 경남무용 위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필이 보살은 총지중 마산 운전자에서 20여년간 수행하며 봉사활동을 해온 신심 돈독한 불자다. 시상식은 10월 20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렸다.



강유신 기자

"종교 초월해 나눔운동 동참"

'사명당의집' 후원 나선 박완서씨

"작은손길'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사진)이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작은손길 사명당의집 후원의 밤에 나타났다. 박완서 선생은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의 장모, 박완서 선생은 "마음속으로는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위가 자선사업에만 열심인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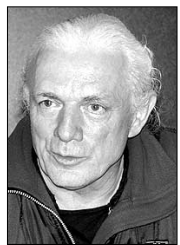
의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작은손길은 현재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에 새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02)924-1010, 후원: 조흥은행 397-01-098367(예금주 작은손길) 유철주 기자

"몽골 불교예술 만날 기회 기대하세요"

몽골 탕카 한국전시 추진하는 글렌 멀린씨

"한국과 중국, 서남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으로서 몽골 불교는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몽골에서 불교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캐나다인 글렌 멀린씨(사진). 최근 방한한 글렌씨는 내년 몽골 불교 성립 800주년을 맞아, 몽골 탕카 서울 전시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몽골 탕카는 티베트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터키 등 서남아시아의 예술기법까지 수용해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멀린씨는 "몽골불교는 실크로드를 통해 오랫동안 한국불교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며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와 몽골문화를 한눈에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렌 멀린씨가 몽골불교 부흥운

동에 나서게 된 것은 90년대 초, 함께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불교 공부했던 몽골인 도반의 영향이 컸다. 멀린씨는 자연스럽게 몽골불교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됐고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의 기운이 무르익자 몽골불교를 되살리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몽골에 유일한 여성 수행자 전통을 복원하는 일. 멀린씨는 "몽골불교는 공산치하 70년 동안 철저한 탄압을 받았지만 여전히 몽골인 심층속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 수행자 전통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내달 '초의차명상원' 개원

지장 스님, 직접 강의도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우는 공간으로 꾸며겠습니다" 서울 한복 판에 차와 명상이 만나는 '종합철빙공간'이 문을 연다. 지장 스님(사진)은 11월 8일 종로 두산위브빌딩에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하고 '차명상'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30여 평 규모의 명상원은 다실과 강의실로 구성되며, 점심시간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전통 차집으로 운영된다. 강의는 초급(3개월), 중급(3개월), 고급(6개월), 지도자반으로 나뉘며 매주 두 차례 이론과 실습, 상담이 각각 40분씩 진행된다. 차 명상 강좌와 더불어 매달 다도교육, 고전 강독 등의 문화강좌도 열린다. (02)733-7209



여수령 기자

자운율사사리탑비 제막식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이 10월 15일 서울 정릉 경국사에서 봉행됐다. 자운문도회와 가산불교문화원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 감로사 주지 해홍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율사의 율종 진작 대원력과 수행공덕을 대중에게 회향한다"고 말했다.

평양 광범사에서 남북합동법회



조계종 민주본과 천태종, 북한 조불련은 10월 16일 평양 광범사에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민주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 스님은 "평양서 남북 불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지중 서울 관성사 헌공불사



총지중 서울 행운동 관성사 헌공불사가 10월 17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본존제막, 개식사, 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된 이날 헌공불사에서 효강 총지중종령은 "대자대비의 마음 문을 열어 보살도 실천에 일심 정진하자"는 법어를 내렸다. 관성사는 연면적 169평 규모다.

청담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청담복지관(관장 혜성)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4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공연, 개관10주년 경과보고, 직원포장 및 이동목욕센터 개소식 등으로 이어졌다. 관장 혜성 스님과 능인복지관장 박동,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등과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병률련 구례에서 추계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추계의료봉사자 10월 15~16일 구례군 마산면 청천초등학교에서 펼쳐졌다. 전국 병률련 회원 55명은 이날 내과외과 안과 치과 등 5개 진료과목에서 인근 500여 주민의 병을 치료했다. 병률련 불자들은 15일 구례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신심을 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전기금 마련 선서화전 성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0월 19-2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중앙신도회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불교 선서화전'을 개최했다. 구산·일타·해암 스님 등 한국불교 근현대 고승들이 남긴 선서화 작품 등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앙신도회는 신도회관 건립기금 마련과 재정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20,000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병이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병이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뜰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들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입니다. 체할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적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썩어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병이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층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